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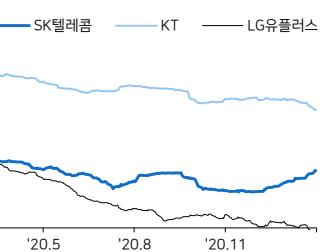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KOSPI	-3.0	-1.4	14.4	28.2	14.2	14.2	1.2	1.2	1.6	1.6	
통신업종	-2.6	1.9	4.5	3.1	9.2	9.2	0.7	0.7	4.3	4.3	
SK텔레콤	-2.4	-1.4	5.3	0.8	15.0	10.0	0.8	0.8	4.0	4.2	
KT	-2.4	8.1	7.4	9.2	9.8	8.4	0.5	0.5	4.4	5.2	
LG유플러스	-4.8	-4.5	-2.9	-2.5	7.1	7.8	0.7	0.7	3.6	4.0	
AT&T	-3.8	-4.3	-3.9	-6.7	8.8	8.9	1.1	1.2	7.5	7.5	
Verizon	-2.0	0.3	-8.7	-6.9	11.4	10.9	3.3	3.0	4.5	4.6	
T-Mobile	-0.1	-2.7	-9.0	4.1	42.1	44.9	2.1	2.4	0.0	0.0	
NTT	-3.2	2.4	9.4	7.4	11.9	11.0	1.1	1.3	3.4	3.7	
KDDI	-2.1	0.3	7.5	0.7	12.0	11.5	1.7	1.6	3.5	3.7	
Softbank	-4.3	15.1	36.5	49.5	N/A	7.4	2.5	2.5	0.4	0.4	
China Mobile	-0.1	12.1	12.9	-4.0	8.5	8.3	0.8	0.8	6.4	6.5	
China Unicom	-3.1	7.0	2.5	-15.2	9.9	8.7	0.4	0.4	4.0	4.5	
China Telecom	-3.5	9.2	2.5	-4.2	7.9	7.5	0.5	0.4	5.5	5.8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SKT 36.2% (+0.4%p WoW, +1.3%p MoM)

KT 42.8% (-0.4%p WoW, -1.2%p MoM)

LGU+ 29.5% (-0.5%p WoW, -1.2%p MoM)

SKT 외국인 지분율 상승, KT, LGU+ 외국인 지분율 하락

2 업종 코멘트

전자 통합

2월 넷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0.4%p 수익률을 기록하며 Outperform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통신주도 동반 하락
LG유플러스는 기관 및 외국인 순매도로 경쟁사 대비 부진한 주가 흐름 기록
국내 기관은 KT 순매수, LGU+, SK텔레콤 순매도. 외국인은 SK텔레콤 순매수, KT, LGU+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증시 회복 여부에 주목
미국 C밴드 주파수 경매는 Verizon, AT&T, T-Mobile 순으로 주파수 확보
삼성전자를 공급 벤더로 선정한 Verizon이 전체 경매 규모의 62%를 차지한 점이 긍정적
미국에 이어 인도는 올해 중순, 유럽은 하반기 목표로 5G 인프라 투자 본격화 전망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1	22	23	24	25	26	27
28	1	2	3	4	5	6

3 주간 뉴스

▶ 美 FCC 5G 주파수 경매 버라이즌, AT&T 등 280 MHz 주파수 확보

(글로벌이코노미)

- CNBC는 이번 경매의 승자는 미국 대형 통신회사 버라이즌(Verizon)과 AT&T가 차지했다고 보도
- 버라이즌은 455억 달러, AT&T는 234억 달러, T-모바일(T-Mobile)은 93억 달러 입찰로 경매 마무리
- 기존 무선 서비스보다 월등히 빠른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280 MHz 주파수가 필요
- ⇒ 예상대로 중간대역 주파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버라이즌과 AT&T가 가장 큰 입찰자로 등극
- ⇒ E모바일은 스프린트와의 합병을 통해 일부 중간대역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에 집중

▶ SKT, '5G 중간요금제' 내놓는다…소비자 선택권 강화

(데일리안)

- SK텔레콤, 월 100GB 안팎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중간 요금제 출시를 위해 정부와 사전 협의의 둘입
- 현재 SK텔레콤에는 월 5만5000원(이하 부가세 포함)에 데이터 9GB를 제공하는 '5G 슬림'과
- 바로 위에 월 7만5000원에 200GB를 제공하는 '5GX 스탠다드'만 있을 뿐 중간 선택지가 없는 상황
- ⇒ 5G 저저가 요금제 출시와 '갤럭시S21' 등 5G 단말기 라인업 확대는 무선 ARPU 상승에 긍정적
- ⇒ 또한 SKT의 '5G 중간요금제' 출시는 향후 LTE에서 5G로의 가입자 전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KT, OTT '시즌' 분사 가시화

(아이뉴스24)

- KT, "모바일미디어사업을 전담하는 전문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OTT '시즌' 분사를 가시화
- 분사를 통한 '시즌' 육성 본격화에 따라 KT의 미디어 플랫폼 전략도 IPTV와 OTT로 양분되는 분위기
- 또한 기존 속품 위주 오리지널 콘텐츠를 '미드폼'까지 확장할 방침으로, 해외 유동도 동시에 추진 중
- ⇒ 유료방송 시장 1위를 수성했던 KT의 미디어 플랫폼 전략도 OTT로 궤도 변경이 있을 것이란 관측
- ⇒ '시즌'이 KT 주력 미디어 플랫폼을 담당한다면, 콘텐츠 IP 확보는 'KT 스튜디오 지니'가 맡게될 전망

▶ "계열사 부당 지원" SKT-SKB에 과징금 63억

(조선비즈)

- 공정거래위원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과징금 63억원을 부과
- IPTV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의 대리점 수수료 약 200억원을 대납했다고 판단
- ARPU에 따른 비용 배분 기준으로 '정상가'를 산정하고, '실제' 수수료를 비교해 부당성을 입증
- ⇒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공정위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소송 등 법정 대응을 예고
- ⇒ SK텔레콤은 결합상품 수수료 상향의 주된 목적이 이통 시장 경쟁 대응이 주목적임을 주장

▶ EU, 18억 유로 규모 5G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추진

(산업일보)

- EU, 5G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투자프로젝트를 실시
- EU와 회원국들은 각출한 총 18억 유로를 5G 네트워크 인프라 사업과 6G 기술 연구에 지원
- 현재 EU의 절반 수준의 회원국이 5G 저주파 대역을 할당하는데 그치며 투자가 크게 미흡한 수준
- ⇒ 유럽 내 본격 5G 투자는 EU 이사회 승인 이후인 하반기에 인프라 개선과 함께 본격 추진될 예정
- ⇒ 통신장비주체에서 지지부진한 미국 수주보다는 유럽 향 수주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

▶ 에이스테크, 중동·아프리카 이어 인도서도 대형 수주

(한국경제)

- 에이스테크, 인도 통신사업자의 인도 내 기지국 안테나 공급자 입찰에서 1위 공급사로 선정
- 인도를 비롯해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는 가입자 기준 세계 3위 통신사
- 1위로 선정된 업체가 전체 물량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2위 그룹이 나눠 갖는 시스템
- ⇒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뛰어난 일주일 만에 인도에서도 수주에 성공하며 공격적으로 시장 확대
- ⇒ 에이스테크는 4월부터 안테나 제품을 양산해 공급할 예정, 올해 인도 전체 매출 800억원 전망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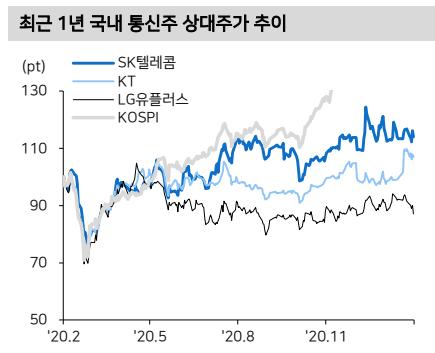
주요 지표

(집계달력)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한국	SK텔레콤	247,500	17.7	17.7	18.4	1.3	1.5	1.8	2.1	5.1	5.2	5.2	5.1	8.0	8.9
	KT	26,000	6.0	22.3	22.9	1.2	1.3	0.7	0.8	4.6	4.6	2.5	2.5	5.7	6.1
	LG유플러스	11,800	4.6	12.7	13.2	0.9	1.0	0.6	0.7	3.1	3.2	3.1	3.0	8.7	9.4
미국	AT&T	27.9	198.9	173.1	173.4	32.2	33.1	22.1	23.2	54.4	55.5	7.1	7.0	13.1	13.4
	Verizon	55.3	228.8	133.1	135.6	32.0	32.8	21.0	21.6	48.8	49.8	6.9	6.8	31.4	35.5
	T-Mobile	120.0	149.1	78.4	80.7	8.0	10.1	3.5	4.9	26.9	28.5	8.0	7.6	6.1	6.3
일본	NTT	2,758	100.9	111.1	112.5	15.5	15.7	8.7	9.9	29.6	29.9	5.8	5.8	10.8	12.5
	KDDI	3,290	71.1	50.0	50.9	10.0	10.0	6.2	6.3	16.8	16.6	5.2	5.2	14.4	13.7
	Softbank	9,895	193.9	54.0	55.6	17.5	9.3	19.3	6.0	25.0	15.2	12.8	21.1	33.6	10.1
중국	China Mobile	53.7	141.8	121.8	126.4	18.3	18.7	17.1	17.7	45.6	47.1	1.8	1.7	9.3	9.3
	China Unicom	4.9	19.4	48.5	50.6	2.2	2.6	2.3	2.6	15.4	15.8	1.4	1.3	4.4	4.9
	China Telecom	2.5	26.0	62.8	65.3	4.7	5.0	3.5	3.8	19.1	19.7	1.9	1.8	6.2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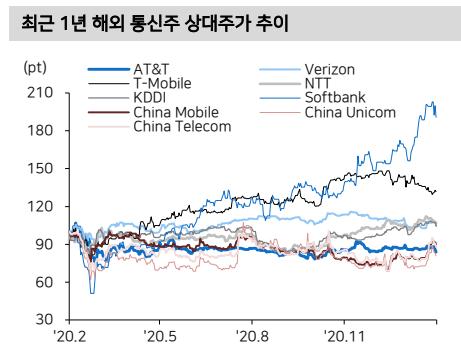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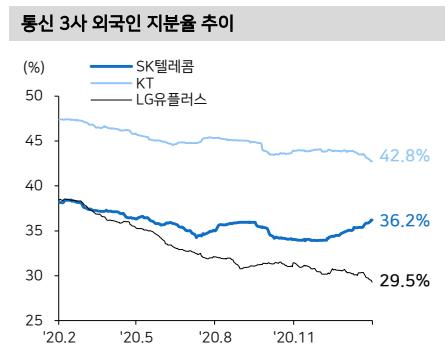
주요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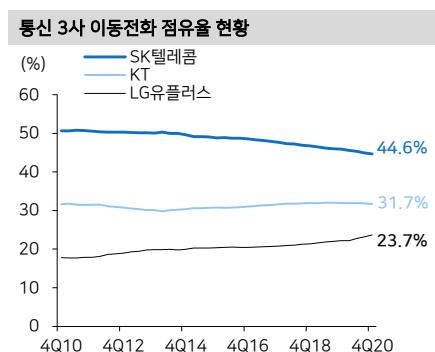
자료: WiseF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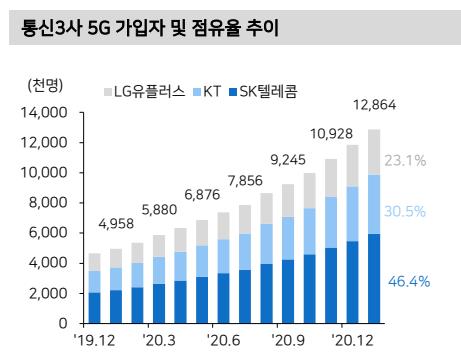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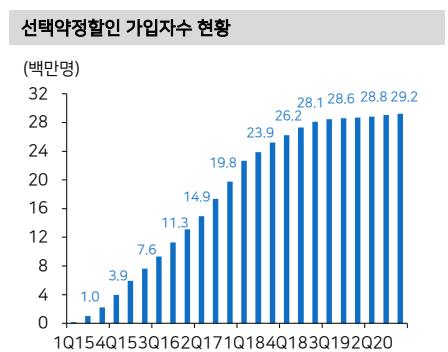
자료: WiseF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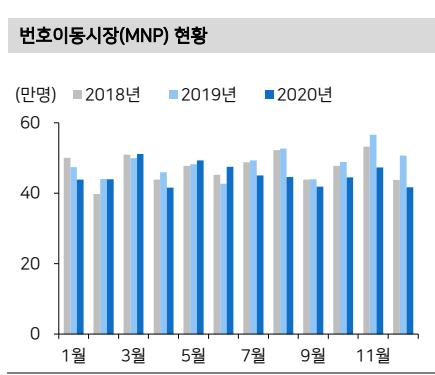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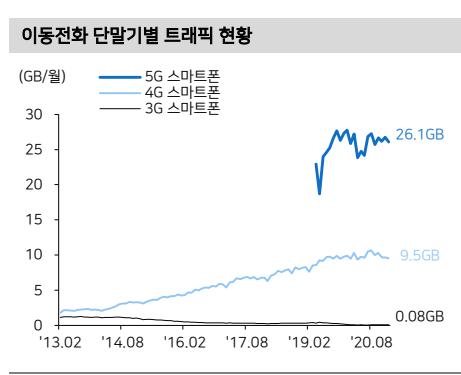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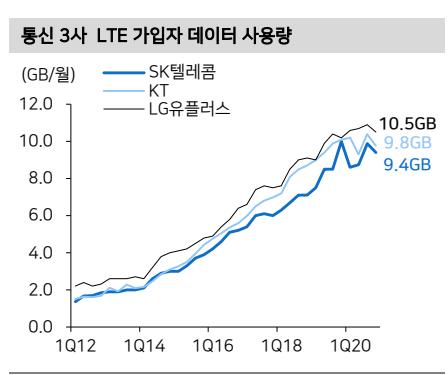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